

# 성모병원 ‘베품의 의술’

진료·치료비 형태로 지원… 남구와 업무협약

부산성모병원이 바자회 수익금 5,000만 원을 남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 병원은 현금 대신 바자회 수익금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김성원 병원장과 박용승 행정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청과 체결했다.

성모병원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7일 자선바자회를 병원 안에서 열고 직원, 환자가족, 지역주민들에게 음식,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5,000만원을 모금했다.

이에 병원은 남구청으로부터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차상위 주민을 추천 받아 가정의학과, 신경과, 소화가내과 등 진료·

치료비용(수술 포함)으로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 예방 차원의 검진(종합검진 포함)과 치과 진료는 이번 협약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을 선정해 명단을 성모병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원 병원장은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모병원과 직원들은 남구 주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성모병원은 2003년 지금의 자리에 착공에 들어가 2006년 6월 12일부터 진료 를 보기 시작했다.



부산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8일 남구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의료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자회 수익금 5,000만원

남구주민 위해 전액 사용

365일 이기대 쓰레기 수거

조상희씨 신지식인 선정



본지(234호 5면)에 소개된 UDT바다살리기운동본부 조상희(용호동 거주·사진) 단장이 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가 주관

한 2016년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사회공헌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조 단장은 지난 6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UDT(해군특수전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친 조 단장은 이후 40년 가까이 잡수사로 생활하다 2012년 수중 작업 중에 오른쪽 손목을 잃은 사고를 당했다. 이후 실의를 딛고 자원봉사활동에 매진, UDT바다살리기운동본부를 결성해 2014년부터 단원들과 이기대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수거하고 있다.

## 남구볼링팀 전국대회 종합우승

제1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금2·은2·동1 획득



남구 볼링팀(감독 소미경)이 제1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여자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볼링팀은 6월 17~2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대전시청과 곡성군청을 따돌리고 올해 첫 단체 종합우승컵을 들었다.

유성희 선수는 개인전에서 평균 219.2점, 강현진·김지혜 선수는 2인조 경기에서 평균 215.6점을 얻어 금메달을 안았다. 또 유성희·이미령 선수는 여자일반부 마스터즈 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단체 종합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유성희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 마스터즈 은메달 외에 개인종합에서도 평균 208.5점을 얻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소미경 감독은 “볼링팀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남구청과 구민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 뇌사 시어머니 집에서 8년 간병

■ 제8회 아름다운 가정상 감만동 이원기씨 가족

3대가 화목하게 지내던 이원기씨 집안에 불운이 닥친 것은 월드컵 열기가 채 식지 않은 2002년 8월이었다. 철야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 김 씨가 탄 버스가 낙동대교 위에서 정소차와 정면 충돌을 했다. 이 사고로 부인은 의식도 없고 호스로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식물인간(뇌병변 장애1급)이 됐다. 당시 3세, 6세 딸·아들을 둔 머느리 은주 씨는 만사를 제쳐놓고 병수발을 들었다. 뇌사 상태나 다름없던 시어머니는 집 안에서 8년간 가족의 보살핌을 받다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났다.

감만동에서 사는 이원기(83세) 가족이

제8회 아름다운 가정상을 받았다. 아들 네 외와 손주 등 3대가 모여 화목한 가정과 경로효전을 실천하는 이씨 가정은 지난 1967년 감만동에 정착한 후 한 번도 이사를 가 본 적이 없는 감만동 토박이다.

머느리 문은주(48) 씨는 “아이 둘을 낳을 때 시어머니가 받아줄 만큼 살가웠던 분이었다”며 오랜 병간호는 시모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다고 말했다. 조립식 건물 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아들 상배 씨는 20여 년 전 결혼할 때부터 부모를 모시며 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은주 씨는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 학교



제8회 아름다운 가정상을 받은 이원기 씨 가족이 감만동 자택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머느리 문은주 씨, 이원기 씨, 손녀 최진 양, 아들 상배 씨.

에서 돌아오면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를 먼저 찾는다”며 “집안에 어른이 계시어서 아

이들 인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소통 리더십’으로

## 남구 생활축구에 신바람

■ 정승균 남구축구협회장

때로 한 명의 리더가 조직의 성쇠를 좌우하는 법이다. 근래 남구축구협회에 부는 신바람의 중심에 정승균(52·감만 축구회 소속) 회장이 있다.

지난 4월 취임 직후 남구축구협회 소속 30대, 40대, 50대, 60대 동우회가 부산시 협회장과 순환시원배 축구대회에서 우승컵을 싹쓸이했다. 여세를 몰아 부산 대표로 출전한 지난 6월 전국대회에서도 잇단 남보를 올렸다.

제6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한마당 준우승(50대 동우회), 2016전국 생활체육 대추전 3위(40대 동우회)의 성적을 냈다. 오는 8월 27~28일 제35회 연합회장기에 40대와 60대 동우회가 출전을 앞두고 있고, 기량이 가장 뛰어난

임기 8개월 임시회장 취임 직후

동우회축구 부산대회 등 싹쓸이



의 리더십은 ‘소통’이었다. 취임 직후 매일 같이 협회 소속 16개

팀 동우회 간부들을 만나 “다시 한 번 해보자”며 간곡히 설득했다. 투병 재정의 기치를 내걸고 목돈이 들어가는 회장 취임식도 생략했다. 그의 진정성에 회원들이 하나둘 마음이 문을 열었다. 산업플랜트 전열기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정 회장은 “사업의 스트레스를 축구로 푼다”고 말했다. “매일 두시간 급 추대했다. 그렇게 ‘응급실 당치의 사’로 투입돼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실려 놓았다. 남구축구협회에 신명을 불어넣은 그

## 해작사 장병들 ‘선배 노병’에 보은의 금일봉

해군 출신으로 6·25에 참전한 배점봉(6·25남구지회 부지회장)씨에게 지난 6월 28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복을 맡금하게 차려 입은 해군 원사가 배

원사 3명에게도 감사의 봉투를 전달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남구지회 소속 ‘노병’들은 후배 해군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 했다.



이밖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남구 관내 보훈단체와 참전유공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지난 6월 3일 대연동 보훈회관에 석포교회에서 200인 분의 떡을, 대연동 남부산농협에서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20일에는 대연3동 영진패지국밥

(대표 한충헌)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에 위로금 10만을 보내왔다. 앞서 13일 고영철 남구지회장은 지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친 이식영 대연6동 운영위원과 대연5동 재향군인회여성회 이영자 회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 잠깐!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산에서는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며, 지난 90년 초반 공개토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아파트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②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집 마련 홍보를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시행, 건축규모결정 등)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④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물며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 조합의 사업추진은 조합설립 시 토지사용권(80%이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소유권(9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업인 것입니다.
- ⑤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의 : 남구청 건축과 607-4601

## 8월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남구보건소에서 임신부·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보충식품제공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의 8월 신규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래 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시오.

■공고기간 : 2016. 08. 01. ~8. 11. 09:00~17:00

■모집대상 : 관내 60개월 미만 영유아, 출산부, 임신부

■사업내용

- 매월 1회 영양교육, 정기적 영양위험요인평가
- 쌀, 감자, 당근, 감정콩, 달걀, 우유, 분유 등 보충식품 가정배송

■자격요건

-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가구원수에 따라포함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300,000	42,386	17,851	42,727
2인	2,213,000	72,668	62,717	73,532
3인	2,863,000	94,220	95,200	94,955
4인	3,513,000	115,661	127,257	117,115
5인	4,163,000	136,337	153,224	138,194

•영양위험요인

-저체중, 저신장(표준성장도표 백분위수 10th percentil 미만), 빈혈 등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www.bsnamgu.go.kr](http://www.bsnamgu.go.kr)에서 공고 확인
- 영양플러스상담실 ☎607-6454로 전화 후 반드시 방문예약
- 보건소 내방하여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대상자격 판정

■문 의 : 영양플러스상담실 ☎607-6454

## 2016년 하반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심뇌혈관질환 및 고위험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질환관리를 통해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반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강 사
9.20(화)	고혈압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리	최정현(부산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 교수)
9.27(화)	고혈압의 식이요법 및 영양상담	강현주(동부산대학교식품영양학과 교수)
10.4(화)	고혈압의운동요법	안하나(부산간기연맹사무국장)

구분	내 용	강 사
9.22(목)	당뇨병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리	김종호(부산대학교병원내분비내과 교수)
9.29(목)	당뇨병의 식이요법 및 영양상담	강현주(동부산대학교식품영양학과 교수)
10.6(목)	당뇨병의운동요법	안하나(부산간기연맹사무국장)

■문의 및 신청 : 원스톱 상담실 ☎607-6418, 6422

##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인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1577-1000)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